

완자

공부력

초등 전과목 어휘 2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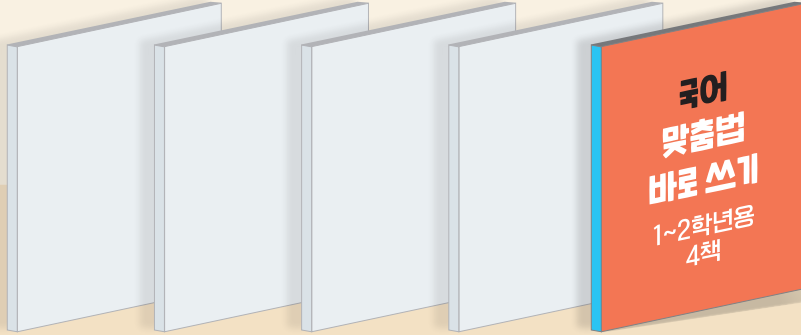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완자 공부력 가이드 2

정답 6

공부력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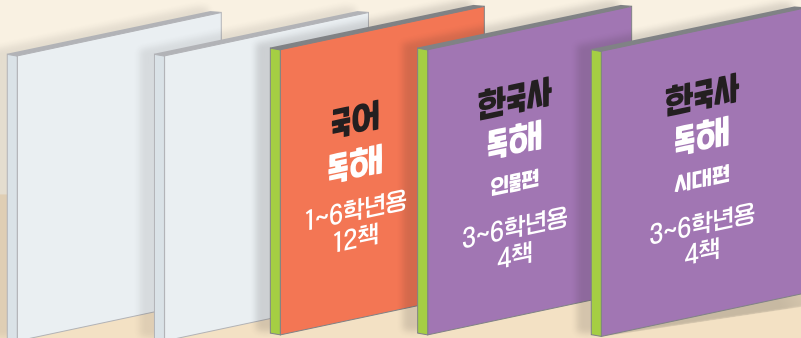
완자 공부력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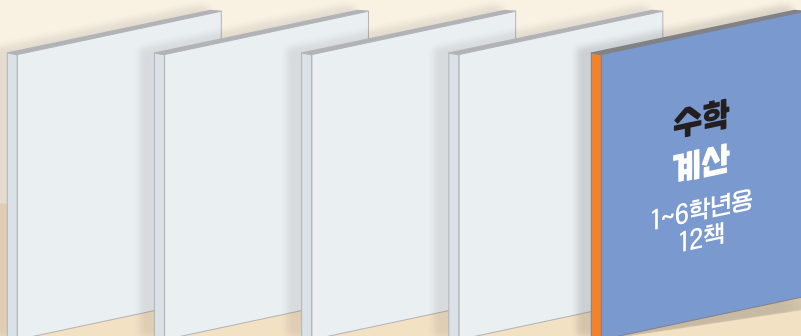
쓰기력



어휘력



독해력



계산력



완자 공부력 시리즈로 공부 근육을 키워요!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관련된
공부력을 키워야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어휘력과 독해력, 쓰기력, 계산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력'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상당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한 학습이
가능한 '완자 공부력 시리즈'로 공부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튼튼한 공부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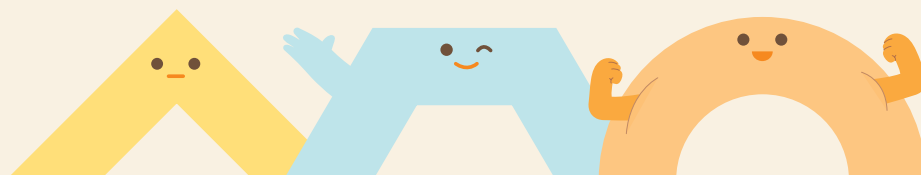


효과적인 **공부력 강화 계획**을 세워요!

● 학년별 공부 계획

내 학년에 맞게 꾸준히 공부 계획을 세워요!

		1-2학년	3-4학년	5-6학년
기본	독해	국어 독해 1A 1B 2A 2B	국어 독해 3A 3B 4A 4B	국어 독해 5A 5B 6A 6B
	계산	수학 계산 1A 1B 2A 2B	수학 계산 3A 3B 4A 4B	수학 계산 5A 5B 6A 6B
	어휘	전과목 어휘 1A 1B 2A 2B	전과목 어휘 3A 3B 4A 4B	전과목 어휘 5A 5B 6A 6B
		파닉스 1 2	영단어 3A 3B 4A 4B	영단어 5A 5B 6A 6B
확장	어휘	전과목 한자 어휘 1A 1B 2A 2B	전과목 한자 어휘 3A 3B 4A 4B	전과목 한자 어휘 5A 5B 6A 6B
	쓰기	맞춤법 바로 쓰기 1A 1B 2A 2B		
	독해			한국사 독해 인물편 1 2 3 4 한국사 독해 시대편 1 2 3 4



○ 시기별 공부 계획

학기 중에는 기본, 방학 중에는 기본 + 확장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요!

방학 중			
학기 중			
기본			확장
독해	계산	어휘	어휘, 쓰기, 독해
국어 독해	수학 계산	전과목 어휘	전과목 한자 어휘
		파닉스(1~2학년) 영단어(3~6학년)	맞춤법 바로 쓰기(1~2학년) 한국사 독해(3~6학년)

예시 초1 학기 중 공부 계획표 주 5일 하루 3과목 (45분)

월	화	수	목	금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전과목 어휘	파닉스	전과목 어휘	전과목 어휘	파닉스

예시 초4 방학 중 공부 계획표 주 5일 하루 4과목 (60분)

월	화	수	목	금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수학 계산
전과목 어휘	영단어	전과목 어휘	전과목 어휘	영단어
한국사 독해 인물편	전과목 한자 어휘	한국사 독해 인물편	전과목 한자 어휘	한국사 독해 인물편

01 뜻 (잊었던 |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갖게 | **갖지 않게**) 되다.

02 부탁

03 **도착한다**

- 전하다: (누구에게 남의 물건을) 옮겨다 주다.
- 방문하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다.
- 지나가다: (어떤 곳을) 머무르거나 들르지 않고 거쳐서 가다.

04 ④ 타일렀다

- ① 달래다: (기분을 맞추어 가면서 누구를) 구슬리거나 타이르다.
- ② 위로하다: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다.
- ③ 부탁하다: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고 맡기다.
- ⑤ 베풀다: (은혜 · 사랑 · 덕을) 받아 누리게 하다.

05 1 **심** **다** 2 **많** **다** 3 **끓** **는** **다**

06 ☒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 ‘나’는 연필을 부러뜨리고 도리어 화를 내는 친구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말을 잃었다’는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다. 첫 번째 문장은 ‘말이 물 흐르듯 하다’, 두 번째 문장은 ‘말만 앞세우다’라는 말의 뜻이다.

07 ☒ 엄마는 진우에게 간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는 속담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엄마는 진우의 생활 태도에 관한 충고를 하신 것이므로 이 속담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상황이다.

08 **거** **울** 을 처음 본 사람들의 이야기

• 이 글에 나온 장사꾼 부부와 사또는 거울을 난생처음 보고 그 안에 비친 사람들이 자신인 줄 몰라서 오해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09 ② 거울을 사다 달라고 하였다.

• 장사꾼의 아내는 한양에 거울이라는 귀한 물건이 있으니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10 ☒ 사또

• 장사꾼 부부와 사또는 거울을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에 거울이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또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자 새로운 사또가 왔다고 생각했다.

01 ① 공연 ② 입장

02 좌석

- 출석: 수업이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
- 방석: 어디에 앉을 때에 밑에 깔고 앉는 작은 깔개
- 결석: 학교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03 ② 보려고

04 ① 장소 ② 공장

05 ⑤ 반복하다 - 되풀이하다

- '입장'과 '퇴장'은 서로 뜻이 반대되는 어휘이다. ⑤의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는 뜻이 비슷한 관계이고, ①, ②, ③, ④는 <보기>와 같이 뜻이 반대되는 관계이다.

06 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굴다.

- 친구를 도와주자는 효리의 말에 찬화는 끼어들기 싫다고 말하고, 효리는 가만히 있지 말자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알맞다.
- ① '발이 묶이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② '손가락 안에 꼽히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③ '첫 단추를 끼우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④ '찬밥 더운밥 가리다'라는 말의 뜻이다.

07 ☒ 아픈 동생이 걱정되어 어머니는 _____ 이었다.

- 아픈 동생을 걱정하는 어머니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것이므로 '좌불안석'이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하기에 알맞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는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뜻하는 '이구동성(異口同聲)'이 들어가는 것이 어울린다.

08 공 연 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점

- 이 글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에 지켜야 할 점을 안내하는 글이다.

09 ② 정해진 자리에 앉기

- 이 글의 첫 번째 항목에서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입장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0 ☒ 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휴대 전화를 꺼 두셔야 합니다.

- 그림 속 사람은 공연 중에 휴대 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공연 관람을 방해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는 휴대 전화를 꺼 두라는 항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



01 (물건 | 공기) 따위의 기체가 (꼭 차 있는 | 전혀 없는) 공간

02 장비

03 옷차림

04 ㉠

㉠에는 '높다'와 같은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05 ④ 장난감

'장난감'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을 뜻하는 말로, 느낌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인 '-감'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① 자신감: 자신이 있다는 느낌
- ②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 ③ 위기감: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
- ⑤ 긴장감: 긴장한 느낌

06 ☒ 없는 것이 없다

제시된 문장의 앞뒤 내용으로 볼 때 빈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으므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는 뜻의 '없는 것이 없다'가 들어가야 한다.

07 ① 빈 수레가 요란하다

현호가 축구를 잘한다며 뽐냈지만 실제로는 축구를 잘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든다.'는 뜻의 '빈 수레가 요란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②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교는 말이다.
- ③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 ⑤ 크고 작고, 이기고 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실제로 겨루어 보거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08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입는 옷

이 글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입는 옷인 우주복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09 ② 무게는 10킬로그램 정도로 가벼운 편이다.

다양한 장치가 달려 있는 우주복의 무게는 100킬로그램 정도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10 진공 상태

이 글의 첫 문장을 통해 우주는 지구와 달리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01 갈등

02 역할

- 자리: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지위
- 자격: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 장비: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지니거나 갖추어야 하는 물건

03 1 화목 2 존중

04 1 중요 2 소중

05 1 ㉠ 2 ㉡ 3 ㉢

06 ④ 한마음 한뜻으로

- 민우가 1등을 해서 우리 반이 상품을 받는 것은 모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와 같음.'의 뜻을 가진 '한마음 한뜻으로'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끼어 급하게 서두르다.
- ②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 ③ 말이나 행동을 몹시 이랬다 저랬다 하다.
- ⑤ 껌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들리는 듯하다.

07 ☒ 그는 부잣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사람이다.

- 매우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의 속담이므로 세 번째 문장처럼 그 사람이 귀하게 컸다는 뜻의 문장에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

08 가족 간에 생기는 갈 등 의 원인과 해결 방법

- 이 글에서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 생기는 가족 간의 갈등을 말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09 ④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 이 글에서 가족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10 ⑤ 서로 원하는 것 모두 들어주기

-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가족들 이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01 ㉠

02

납작한

- 단단하다: 무르지 않고 굳다. 헐겁거나 느슨하지 않다.
- 조그마하다: 조금 작다.
- 울퉁불퉁하다: 물체의 거죽이나 표면이 고르지 않고 나오고 들어간다.

03 없애려면 | 문지르려면 | 드러내려면

04

1 대신 2 제거 3 목적

05

1 (맞아 | 말아) 2 (역할 | 역할)
3 (제거하였다 | 제거하였다) 4 (납작한 | 납작한)

06

✓ 귀가 얇다

- 세호는 장기자랑에서 자신이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은유와 민지의 말을 듣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그대로 하려고 한다.

07

④ 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대신 선풍기를 틀었다.

- 에어컨 대신 더위를 식히려고 선풍기를 트는 상황에 '펍 대신 닭'이라는 속담을 사용하기에 알맞다.
- 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를 쓰기에 알맞은 상황이다.
- ②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를 쓰기에 알맞은 상황이다.
- ③ '병 주고 약 준다'를 쓰기에 알맞은 상황이다.
- ⑤ '펍 먹고 알 먹는다'를 쓰기에 알맞은 상황이다.

08

음식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꽃

- 이 글에서는 꽃을 사용한 음식인 화전과 꽃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09

① 화전은 진달래꽃으로만 만들 수 있다.

- 우리 조상들은 화전을 진달래꽃으로 만들었지만, 진달래꽃이 없을 때에는 매화꽃으로 대신하여 만들기도 했다. 지금도 다양한 꽃으로 화전을 만든다.

10

㉠

- 꽃술에는 독이 있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꽃술과 꽃받침을 없애고 꽃잎으로 화전을 만든다.

01 ☒ 계산해 - 다르네

02 ④ 대략

- ① 순간: 아주 짧은 시간
- ② 딱히: 정확하게 꼭 집어서
- ③ 엄청: (양이나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나 대단하게
- ⑤ 조금: 작은 분량이나 정도

03 **어림하였다**

- 믿다: 진실이라고, 옳다고, 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 확신하다: 굳게 믿다.
- 의심하다: 무엇을 이상하게 여겨 믿을 수 없다.

04 1 합계 2 시계

05 1 ㉠ 2 ㉡

06 1 (다른 | **틀린**) 2 (**다른** | 틀린) 3 (**다르다** | 틀리다)

07 ⑤ 속으로는 안 좋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 행동하다.

- 동화의 등장인물인 여우는 속으로는 호랑이를 싫어하고 홍보면서 겉으로는 호랑이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척 꾸며 행동한다.
- ①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② '속에 뼈 있는 소리'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③ '속으로 호박씨만 깐다'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④ '겉 보기가 속 보기'라는 속담의 뜻이다.

08 **시** **각** 과 시간의 차이와 시계를 보는 방법

- 이 글은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설명한 후, 시계를 보고 시간과 시각을 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09 ④ 긴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

- 시계의 긴바늘은 '분'을 알려 주는 것으로, 긴바늘이 작은 눈금 1칸을 가는데 1분이 걸린다.

10 시간

- 엄마는 숙제를 시작한 시각부터 끝난 시각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묻고 있으므로 '시간'이 들어가야 알맞다.



01 줄거리

02 ⑤ 욕심쟁이

- ① 겁쟁이: 겁이 많은 사람 ② 멋쟁이: 멋을 잘 내거나 멋이 있는 사람
③ 변덕쟁이: 생각이나 감정이 자주 변하는 사람 ④ 수다쟁이: 몹시 수다스러운 사람

03 ㉠

04

이해했다

05 1 (욕심장이 | 욕심쟁이) 2 (양복장이 | 양복쟁이) 3 (멋장이 | 멋쟁이)

- ① 간식을 나눠 주지 않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욕심쟁이'가 알맞다.
② 양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므로 '양복장이'가 알맞다.
③ 멋을 많이 부리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멋쟁이'가 알맞다.

06 ⑤ 욕심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다.

- 박 씨는 다른 사람의 보물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금은보화를 보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보물을 훔쳤다. '욕심이 앞을 가리다'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의 말이다.

07 ④ 현지가 엄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네 집에 놀러갈 계획을 짰 상황

- 현지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음에도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네 집에서 놀 계획을 짜고 있다.
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②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③ '도토리 키 재기'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08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편지 쓰기

- 이 글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편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09 ② 인물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한다.

- 이야기 속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인물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인물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상상하는 것은 인물의 마음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 ☒ 흥부에게 일어난 일

- 선생님은 지수에게 흥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때 흥부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하며 편지를 쓰라고 하셨다.



01 ① 규칙 ② 보호자

02 ① 구조하다 ② 적시다

03 ① 적셔

- 말리다: 물기를 다 날려서 없애다.
- 녹이다: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을 열로 액체가 되게 하다.
- 버티다: 오래 참고 견디다.

04 ① 조수 ② 조언

05 ① 과학 ② 기술 ③ 연기

06 ① 쉽다 - 어렵다

- ①의 '쉽다'는 하기가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뜻이고, '어렵다'는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는 뜻이다. 두 어휘는 뜻이 반대인 관계의 어휘들이다. ⑤의 '사라지다'와 '없어지다'는 뜻이 비슷한 관계의 어휘들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휘들이다.

07 ⑤ 남의 도움을 받고서 고마움을 모르고 트집을 잡는다는 말

- 밀줄 그은 숙담은 동생의 숙제를 도와줬는데도 동생이 고마워하기는커녕 트집을 잡는 상황에 사용한 것이다.

08 물놀이를 할 때 지켜야 할 **규** **칙**

- 이 글은 물놀이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9 ⑤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한다.

- 보호자가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머물러야 혹시 생길지도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0 ④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소리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주위에 큰 소리를 쳐서 사람이 빠졌다고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① 물에 빠진 사람을 혼자 구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 ②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근처에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119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 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려야 한다.



01 부족

02 ㉠

☞ '때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가끔'이라는 뜻이므로 ㉠ 문장에 나와 있는 '매일'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03 ③ 조절해야

- ☞ ① 고치다: (헐거나 못쓰게 된 것을) 손질하여 쓸 수 있게 하다.
 ② 줄이다: (무엇의 길이나 크기를) 줄게 하다.
 ④ 조심하다: 잘못이나 실수를 없게 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하다.
 ⑤ 조사하다: 모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기 위해 자세히 살피거나 찾아보다.

04 1 체중 2 체온

05 ☒ 엄마는 가볼 때가 있다고 밖으로 나가셨다.

☞ 첫 번째 문장에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때'가 아닌 곳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데'를 사용해야 한다.

06 1 부족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07 ④ 찬은이가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몸이 아파 힘든 상황

- ☞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몸이 아프게 된 것은 운동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므로 '과유불급'을 사용하기에 알맞다.
 ① 비몽사몽(非夢似夢):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와 어울리는 상황이다.
 ② 대동소이(大同小異):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과 어울리는 상황이다.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과 어울리는 상황이다.
 ⑤ 기우(杞憂):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과 어울리는 상황이다.

08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 이 글은 곰, 뱀, 개구리 등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며 겨울을 보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9 1 (X) 2 (O) 3 (O) 4 (O)

☞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10 ④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 뱀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며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01 진지

02 1 진지 2 주무시다

03 ⑤ 우리 학교는 시내 중심에 계신다.

⑤에는 '계시다'보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다'는 뜻의 '위치하다'를 사용하거나 '있다'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

04 ㉠

05 1 연세 2 께서 3 생신

- 1 높임의 대상에게는 '나이'라는 말 대신에 '연세'를 사용해야 한다.
- 2 높임의 대상에게는 '가' 대신에 '께서'를 사용해야 한다.
- 3 높임의 대상에게는 '생일'이라는 말 대신에 '생신'을 사용해야 한다.

06 ☒ 다리를 뺀고 자다

- '다리를 뺀고 자다'는 마음 놓고 편히 잔다는 뜻의 말이다. 숙제를 하지 않아 불안했던 윤후는 숙제를 다 한 후 안심하고 편하게 잘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리를 뺀고 자다'가 밑줄 그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할 말을 잊다: 놀람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기가 막히다.
 - 첫 단추를 끼우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07 ⑤ 기쁜 일이 있어 만족스럽다.

- 엄마는 민지가 100점을 맞자 매우 기뻐하고 만족하시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셨다.
- ① '밥 먹듯 하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② '배를 불리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③ '밥 구경을 하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④ '배가 아프다'라는 말의 뜻이다.

08 방 학 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간 날

이 글은 글쓴이가 방학이 되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간 일을 쓴 글이다.

09 ② 낮잠을 잤다.

글쓴이가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잠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할머니로, 글쓴이는 낮잠을 잔 적이 없다.

10 친구야, 밥 먹어.

'진지'는 '밥'의 높임말이고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말이다. 친구에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밥 먹어'라고 말할 수 있다.

01 며칠

02 **흘리다**

☞ '붓다'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라는 뜻이므로 '(눈물 · 땀 · 피 등을) 흐르게 하다.'라는 뜻의 '흘리다'와 뜻이 비슷하지 않다.

03 ③ 맞이했다

04 **축복했다**

☞ • 바라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거나 원하다.
• 원하다: 바라거나 청하다.
• 인사하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 이름을 알려 주며 자기를 소개하다.

05 1 (붓어라 | **부어라**) 2 (**붓고** | 부고) 3 (붓어서 | **부어서**)

06 1 ㉠ 2 ㉡

07 ⑤ 아무리 힘을 들여도 보람 없는 일이 되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민지에게 용돈을 주어도 다 써서 계속 없어지는 상황에 대한 엄마의 말이다. 이 속담은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돈, 재주, 기술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된다는 의미이다.
①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라는 말의 뜻이다.
② '갈림길에 서다'라는 말의 뜻이다.
③ '눈뜨고 도둑맞는다'라는 말의 뜻이다.
④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는 말의 뜻이다.

08 우리 조상들의 결혼인 **혼** **례**

☞ 이 글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혼례 과정 중에서 초례, 신행, 폐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9 ③ 초례

☞ 옛날에는 결혼을 '혼례'라고 하고,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서 식을 올리는 것을 '초례'라고 하였다.

10 ☒ 초례를 마친 신랑과 신부는 며칠 동안 신랑의 집에 머물렀다.

☞ 전통 혼례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초례를 올리고, 초례를 마친 뒤 며칠 동안 신부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 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갔다.

01 쌍

02 ㉠

03 느리게

04 ④ 버티지

05 1 여 섯 명 2 다 섯 마 리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 ‘마리’는 동물을 세는 단위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6 1 ㉠ 2 ㉡ 3 ㉢

‘대’는 차나 기계, 악기를 세는 단위, ‘벌’은 옷을 세는 단위, ‘결레’는 신, 양말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이다.

07 ② 일하는 것이 빠르다.

유나와 유나의 짝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케이크를 만들었다. ‘손이 빠르다’는 일을 빠르게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 ① ‘손을 떼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② ‘손이 맵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③ ‘손이 느리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④ ‘손이 느리다’라는 말의 뜻이다.
- ⑤ ‘손이 비다’라는 말의 뜻이다.

08 곤충이 날개를 써서 하늘을 나는 방법

이 글에서는 곤충 날개의 특징과 함께 곤충이 날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09 1 ○ 2 ○ 3 ✕

이 글에서 곤충의 날개 전체에 사람의 핏줄처럼 가느다란 줄들이 있다고 하였지만 소용돌이 모양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공기의 소용돌이는 날개를 파닥거리면 생기는 것이다.

10 ⑤ 앞뒤 날개를 번갈아 가며 움직여서

잠자리는 두 쌍으로 이루어진 날개를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앞과 뒤의 날개를 번갈아 가며 움직인다. 이런 날개의 움직임 때문에 앞뒤로 날거나 공중에서 멈춘 순간에도 갑자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01 합계

02 ㉠

☞ ‘참고’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다.’라는 뜻으로 ㉠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 문장의 빈칸에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 글, 예술 작품 등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의 ‘표현’이 어울린다.

03 ④ 살펴보았다

- ☞ ① 알아내다: (방법이나 수단을 써서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다.
 ② 이용하다: 필요에 맞게 이롭게 쓰다.
 ③ 상상하다: 실제로는 없거나 보이지 않는 것의 모양을 생각 속에 꾸미다.
 ⑤ 궁금하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매우 알고 싶다.

04 1 참고하다 2 나타내다 3 조사하다

05 1 ㉡ 2 ㉢ 3 ㉠

06 ④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말로 드러내다.

- ☞ 임금님은 모자 만드는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입 밖에 내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말한다는 뜻이다.
 ① ‘말을 잃다’라는 말의 뜻이다.
 ② ‘입을 모으다’라는 말의 뜻이다.
 ③ ‘귀가 따갑다’라는 말의 뜻이다.
 ⑤ ‘말도 못하다’라는 말의 뜻이다.

07 ☒ 두 선수의 실력이 타산지석이라서 쉽게 1등을 가릴 수 없다.

☞ 두 선수의 실력이 비슷해서 1등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는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의 뜻을 가진 ‘막상 막하(莫上莫下)’가 어울린다.

08 김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

☞ 이 문제의 마지막 문장에서 2학년 1반 학생 중에서 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묻고 있다.

09 달걀말이: 5, 오이무침: 3, 잡채: 5, 김: 7

☞ 2학년 1반 20명의 학생 중 달걀말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5명, 오이무침을 좋아하는 학생은 3명, 잡채를 좋아하는 학생은 5명이다. $20 - 5 - 3 - 5 = 7$ 로 김을 좋아하는 학생은 7명이다.

10 김

☞ 김을 좋아하는 학생은 7명으로 달걀말이, 오이무침, 잡채를 좋아하는 각각의 학생 수보다 많다.

01 장맛비

02 뜻 (여름철 |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 내려가는) 현상

03 짓다

- 적시다: (어떤 것을) 젖게 만들다.
- 기르다: (식물이나 동물을) 보살펴서 자라게 하다.
- 버티다: 오래 참고 견디다.

04 ④ 평평하게

- ① 부드럽다: (살갗에 닿는 느낌이)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고 폭신폭신했거나 무르고 매끈매끈하다.
- ② 기름지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 ③ 깊숙하다: 꽤 깊다.
- ⑤ 비스듬하다: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다.

05 1 ㉠ 2 ㉡ 3 ㉢

06 1 ㉡ 2 ㉢ 3 ㉠

07 ② 가는 날이 장날

- 주희네 가족은 한라산에 오를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한파와 눈 때문에 이 계획을 망쳤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우연히 당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가는 날이 장날'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 ① 얇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 ③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이다.

08 각 게 절에 농촌에서 하는 일

- 이 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농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09 1 ㉡ 2 ㉠ 3 ㉢ 4 ㉡

- 이 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농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0 비닐하우스

- 비닐하우스는 겨울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을 덮어 만든 온실이다.

01 경사

02 귀해서

... '귀하다'는 구하거나 얻기가 아주 힘들 만큼 드물다는 뜻이다.

03 1 완만하다 2 보호하다

04 1 보존 2 보온

05 ④ 감추다 - 나타내다

... '나타내다'는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다.', '감추다'는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다.'는 뜻을 지니므로 두 어휘는 뜻이 반대된다.

06 1 맑 이 2 곤 란 해 3 비 스 듦 히

07 ④ 여러 사람이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배는 물 위로 떠서 가는 것인데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은 여러 사람이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의 뜻이다.
- ② '뽕 대신 닭'의 뜻이다.
- ③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의 뜻이다.
- 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의 뜻이다.

08 갯 벌 의 이로운 점

... 이 글에서는 갯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갯벌의 좋은 점을 제시하였다.

09 ② 더러운 강으로 물질을 내보낸다.

... 갯벌에 사는 다양한 생물은 강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더러운 물질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므로 갯벌이 강으로 더러운 물질을 내보내지 않는다.

10 ☒ 산소와 먹이가 풍부해서

... 갯벌에는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와 먹이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01 1 (곧은 | 굽은) 2 (곧은 | 굽은)

02 비교

03 길쭉한

- 튼튼하다: (물건이) 매우 단단하고 약하지 않다. 질기다.
- 찔막하다: 조금 짧은 듯하다.
- 평평하다: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없이) 바닥이 고르고 반듯하게 퍼져 있다.

04 1 비유 2 대비

05 1 ㉠ 2 ㉡ 3 ㉢

- 1 '생선을 굽다'라고 했으므로 '굽다'가 '불에 익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2 '꼬불꼬불 굽은 산길'이라고 했으므로 '굽다'가 '한쪽으로 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3 '고무 막대가 쉽게 굽는다'라고 했으므로 '굽다'가 '한쪽으로 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06 1 (길쭉한 | 길쭉한) 2 (곧은 | 곧은) 3 (비뚤어지지 | 비뚤어지지)

07 ☒ 지호는 서아에게 단도직입으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 지호가 말을 돌리지 않고 서아에게 곧바로 고백했다는 문장이므로 곧바로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는 뜻의 '단도직입'을 사용하기에 알맞다.
- 두 번째 문장: 민우에게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뜻의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알맞다.
- 세 번째 문장: 유나가 다른 사람이 모자를 가져갔을까 봐 걱정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는 뜻의 '좌불안석(坐不安席)'이 들어가야 알맞다.

08 원, 삼 각 형, 사각형의 모양과 특징

- 이 글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설명하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변과 꼭짓점이 몇 개인지 알려 주고 있다.

09 ③ 굽은 선으로 이어져 있다.

- 원은 뾰족한 부분 없이 굽은 선으로 둥글게 그려져 있으며, 찌그러진 곳 없이 어느 쪽에서 보아도 동그란 모양이다.

10 ② 7개

- 삼각형의 꼭짓점 3개, 사각형의 꼭짓점 4개를 모두 합하면 7개이다.

01 ① 순식간 ② 출동

02 처치하였다

- 조절하다: 어떤 사정이나 조건에 알맞게 만들다.
- 제거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없애 버리다.
- 주의하다: 경고나 충고하기 위하여 일깨워 주다.

03 ㉠

- ㉠의 빈칸에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한다는 뜻의 '응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① 동작 ② 운동

05 ① 차지 ② 처지 ③ 처치

- ① 누나 몫의 케이크를 자기 몫으로 가진다는 내용이 어울리므로 빈칸에는 '차지'가 알맞다.
- ② 놀부에게 쫓겨나서 흥부가 밥을 굶을 사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어울리므로 빈칸에는 '처지'가 알맞다.
- ③ 불에 데면 의사에게 치료받는다는 내용이 어울리므로 빈칸에는 '처치'가 알맞다.

06 ③ 급하다 - 위급하다는

- '급하다'는 사정이나 형편이 조금도 지체할 겨를이 없이 빨리 처리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위급하다'는 몹시 위태롭고 급하다는 뜻이다. '급하다'와 '위급하다'는 비슷한 뜻을 지닌 어휘이다. 나머지 ①, ②, ④, ⑤는 반대의 뜻을 지닌 어휘이다.

07 ☒ 눈 깜짝할 사이

08 다친 사람을 **구** **조** 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 이 글은 위급한 사고 상황에서 다친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교통수단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09 ⑤ 환자를 구조할 때 사용하는 여러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 구급차, 응급 구조 헬리콥터, 해상 구조 보트 모두 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장비가 있어 환자를 처치하며 병원으로 옮긴다.

10 ① ㉠ ② ㉡

- 응급 구조 헬리콥터는 산이나 섬처럼 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의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강이나 바다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해상 구조 보트가 출동한다.

01 ① 대화 ② 배려

02 바르다고

- 재밌다: (어떤 일이) 마음에 쏘리고 즐겁다.
- 다르다: (어떤 것과)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
- 독특하다: 다른 것과 비슷하지 않고 특별하게 다르다.

03 ㉠

04 ① 대답 ② 상대

05 ① ㉠ ② ㉡ ③ ㉢

- ① 얼굴에 로션을 발랐다는 내용이므로 '바르다'는 '문질러 묻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친구가 예의가 바르다는 내용이므로 '바르다'는 '사회적인 기준에 들어 맞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밤을 까서 알맹이만 발랐다는 내용이므로 '알맹이를 집어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06 ☒ 신경을 쓰다

- 첫 문장은 옷을 멋지게 입고 싶어서 옷차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두 번째 문장은 아이가 그릇을 깰까 봐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두 문장 모두 주의한다는 뜻이 담겨야 하므로 '신경을 쓰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7 ☒ _____의 태도로 장맛비에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두 번째 문장에서 장맛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8 대 화 를 하는 바른 방법

- 이 글은 대화를 하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언어 예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9 ⑤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대화를 잘 이어 갈 수 있다.

10 ④ 상대방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

-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예절을 지키며 배려하면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01 육지

02

빼면

‘포함하다’는 ‘속에 들어 있거나 함께 넣다.’라는 뜻이므로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라는 뜻의 ‘빼다’와 뜻이 반대이다.

03

네 이야기만 듣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적응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장에는 사정이나 형편을 어렵잡아 헤아린다는 뜻의 ‘짐작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1 ㉠ 2 ㉡ 3 ㉢

05

회장 ↔ 부회장

‘부회장’의 ‘부-’는 ‘으뜸의 바로 아래가 됨.’의 뜻을 더하는 ‘부(副)-’이다. ㉠ 부사장, ㉡ 부반장

06

1 ㉠ 2 ㉢ 3 ㉡ 4 ㉣

07

수학 선생님이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쉬우므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린 후에 자전거 자물쇠를 사는 것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일을 고치려 하는 것이므로 이를 표현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를 사용해야 알맞다. 세 번째 문장에는 여러 사람이 제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뜻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사용해야 알맞다.

08

바닷물에 녹아 있는 소금 성분

이 글은 바닷물에 소금 성분이 들어간 까닭을 설명하고, 바닷가 사람들이 바닷물에 적응하여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09

④ 육지의 소금 성분이 바다로 흘러들어서

육지의 소금 성분들이 빗물에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 속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소금 성분도 바닷물에 스며들었다. 바닷물에 이러한 소금 성분이 포함되어 바닷물이 짠 것이다.

10

바닷물을 그대로 농사에 사용했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소금 성분 때문에 바닷물을 먹거나 농사지를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01 ① 적성 ② 능력

02 생활

... '생활'은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뜻이다.

- 역할: (조직이나 기관에서 어떤 자격으로, 또는 어떤 처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일, 또는 맡아서 하는 일
- 목적: 이루려고 하는 그것
- 습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동안에 저절로 굳어진 버릇

03 ㉠

04 가능

05 ① 무감각 ② 무관심

06 ☒ 입에 풀칠하다

07 ⑤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굴뚝이도 한 가지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재주는 가지고 있다는 뜻의 속담이다.

- ① '뚝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③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④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의 뜻이다.

08 나에게 맞는 **직** **업** 을 찾는 방법

... 이 글에서는 직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서 직업을 찾아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09 ① ○ ② ○ ③ ○ ④ ✕

... 직업을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 적성에 맞는지, 내 능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① 어른

... 직업은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하는 일이다. '어른'은 다 자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1 굽 다

2 처 치

3 좌 석

4 합 게

5 장 비

6 1 ○ 2 ✕ 3 ○ 4 ○

☞ 2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다.

7

제	거	비	교
3 순	식	간	2 규
1 충	부	탁	칙
고	때	때	로

8 ④ 화목: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않고 실제로 해 나가다.

☞ ④는 '지키다'의 뜻이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이 있다.'라는 뜻이다.

9 ☒ 옷차림

☞ '복장'은 '옷을 차려입은 모양'이라는 뜻이다.

10 ☒ 분실하다

☞ '잃어버리다'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갖지 않게 되다.'라는 뜻이다.

11 1 ㉠ 2 ㉡

12 ⑤ 보호

☞ '보호'는 '위험으로부터 악한 것을 잘 돌보아 지키다.'라는 뜻이다.

- ① '계산'은 '수를 헤아리다.'이라는 뜻이다.
- ② '포함'은 '속에 들어 있거나 함께 넣다.'라는 뜻이다.
- ③ '짐작'은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 ④ '조사'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라는 뜻이다.

13 ㉠

☞ ㉠은 '참고'의 뜻이다. [예] 지도를 참고해서 길을 찾아갔다.

14 ㉠

☞ ㉠은 '바르다'의 뜻이다. [예] 그는 어른께 공손히 인사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15 ☒ 맞이하다

☞ '도착하다'는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라는 뜻이다. '맞이하다'는 '남편, 아내, 며느리, 사위 등을 예의를 갖추어 가족의 한 사람으로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도착하다'와 뜻이 비슷한 어휘가 아니다.

16 ☒ 버티다

☞ '나타나다'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 그림, 음악 따위로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버티다'는 '무게 따위를 견디다.'라는 뜻으로 '나타나다'와 뜻이 비슷한 어휘가 아니다.

17 ③ 저 언덕은 경사가 완만해서 오르기 힘들다.

☞ ③의 '완만하다'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정도가 가파르지 않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오르기 힘들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려면 '완만해서' 대신 '산이나 길이 몹시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의 '가팔라서'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

- ① '주무시다'는 '자다'의 높임말이다.
- ② '장맛비'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내리는 비'라는 뜻이다.
- ④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 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 ⑤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뜻이다.

18 귀

19 재주

20 처지

1 며 칠

2 축 복

3 순 간

4 짐 작

5 조 사

6 1 ㉠ 2 ㉡

7 1 ○ 2 ✕ 3 ○ 4 ○

② '적시다'는 '물 따위의 액체를 묻혀 젖게 하다.'라는 뜻이다. 제시된 뜻은 '건조하다'의 뜻이다.

8 ⑤ 빼다, 포함하다

⑤ '빼다'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 '포함하다'는 '속에 들어 있거나 함께 넣다.'라는 뜻으로 두 어휘는 뜻이 반대이다.

①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뺀 지구의 표면'이라는 뜻으로, '땅'과 뜻이 비슷하다.

② '파악'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래의 성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라는 뜻으로, '이해'와 뜻이 비슷하다.

③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으로 '추위'와 뜻이 비슷하다.

④ '경사'는 '비스듬히 기울어짐.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라는 뜻으로 '비탈'과 뜻이 비슷하다.

9 1 (가끔) 자주)

2 (적은) 많은)

3 (듣다) 물어보다)

4 (평평하고) 통통하고)

10 ② 비교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대보고 서로 간의 비슷한 점, 차이점 따위를 살펴보다.'라는 뜻이다.

① '관람'은 '연극, 영화, 운동 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하다.'라는 뜻이다.

③ '적응'은 '일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알맞게 되다.'라는 뜻이다.

④ '존중'은 '높이 귀하고 중요하게 대하다.'라는 뜻이다.

⑤ '조사'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라는 뜻이다.

11 ⑤ 이 도로는 평평해서 차가 지나갈 때 크게 흔들린다.

... '평평하다'는 '바닥이 고르고 편편하다.'라는 뜻이다. 도로가 평평하다면 차가 지나갈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평평해서' 대신 '울퉁불퉁해서'를 사용하는 것이 문장에 어울린다.

- ① '부탁'은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다.'라는 뜻이다.
- ② '구조'는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다.'라는 뜻이다.
- ③ '응급'은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하다. 또는 급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다.'라는 뜻이다.
- ④ '생계'는 '살아갈 방법 또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뜻이다.

12 ☒ 실력

... '능력'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다.

13 ☒ 다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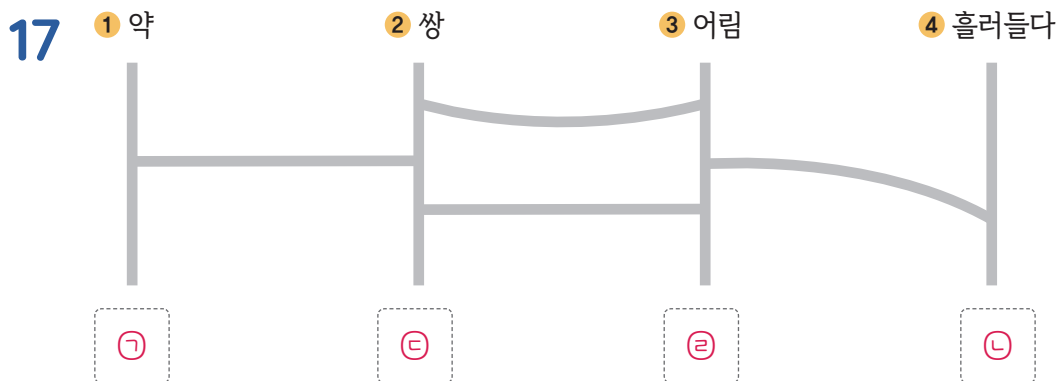
...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 등이 달라 서로 맞서다.'라는 뜻이다.

14 ☒ 반듯하다

... '곧다'는 '굽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뜻이다.

15 ☒ 부족하다

16 ☒ 느리게



18 손

19 약

20 불안

속담 · 한자 성어 깊이 알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 본문 18쪽



‘수레’는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로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것을 말합니다.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가면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레에 짐이 별로 없으면 그 짐들이 움직이면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든다.’는 뜻입니다.

예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농구를 잘한다며 잘난 체하던 짝이 막상 농구 시합을 하니 공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 본문 34쪽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에도 김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뽀뽀한 떡 종류를 먹을 때에는 김치에 들어 있는 국물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저 떡을 먹으면 목이 메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리 김치국을 마셨습니다. 물론 떡을 가진 사람은 떡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예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형은 아빠가 생일 선물로 게임기를 사 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

— 본문 62쪽

‘장날’은 장을 서는 날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오 일에 한 번씩 장이 열려서 장날이면 사람들은 장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고 장 구경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장에 가고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이 일에서 생긴 말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우연히 당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 도서관에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도서관이 쉬는 날이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본문 66쪽



‘사공’은 배를 움직이는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여러 사람이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서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느라 음식을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다.

좌불안석

—
본문 14쪽

앉다
아니다
편안하다
자리

좌(坐)
불(不)
안(安)
석(席)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조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보던 조나라 항우가 조나라와 힘을 합쳐 진나라를 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의 반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진나라에게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좌불안석이 되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예 형의 장난감을 망가뜨린 나는 형이 이 사실을 알까 봐 좌불안석(坐不安席)이었다.

과유불급

—
본문 42쪽

지나다
오히려
아니다
미치다

과(過)
유(猶)
불(不)
급(及)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상태가 중요하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내 짝이 계속해서 내 칭찬을 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다.

타산지석

—
본문 58쪽

다르다
산
~의
돌

타(他)
산(山)
지(之)
석(石)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이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도 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시에서 ‘하찮은 사람의 말과 행동조차 군자가 마음을 다듬고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예 친구의 실수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완벽하게 내 역할을 해냈다.

역지사지

—
본문 78쪽

바꾸다
처지
생각하다
가다

역(易)
지(地)
사(思)
지(之)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배려해야 한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하나라의 우 임금과 주나라의 후직은 백성들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직접 밭을 갈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과 백성들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memo

